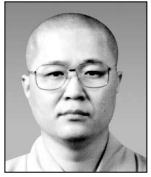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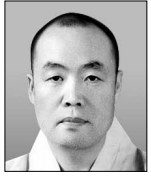
일주문



정대스님 49재 봉행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1월 5일 안양 삼막사에서 前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의 열반 49재를 봉행했다.



미국 스토니브룩대 해외연수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선학과 교수 홍호스님은 1월 2일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로 6개월간 해외 연수차 출국했다.



종도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스님은 1월 5일 서울 등촌동 용현사 보리원에서 갑신년 종도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2004년 시무식 개최
대한불교 원흥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은 1월 14일 서울 구로동 원흥원에서 2004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년기원 해오름 철야법회
서울 소림정사 주지 지형스님은 1월 1일 경주 대왕암에서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원 해오름 철야법회를 봉행했다.



故 안진현 추모법회
서울 북한산 내원사 주지 정수스님은 1월 6일 내원사 대웅전에서 불자가수 조용필 씨 부인 故 안진현 씨 추모 1주 치도재를 봉행했다.



동계수련회 및 수계 법회 봉행
전북불교대학 강건자 학장은 1월 3-4일 이틀간 순천 송광사에서 일일출가 동계 수련회 및 합동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재소자용' 클래식 CD집 제작
법무부 강금실 장관은 2004년 1월부터 전국 교도소, 구치소 재소자 교화를 위해 클래식 명곡이 수록된 CD집과 해설서를 제작한다.



강원 건봉사서 신년 기원법회
서울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1월 1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와 하진포에서 2004년 신년 맞이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일일관법명상 진행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용식 명상학 주임교수는 1월 11일 구로구 학교내 1층 101호 강의실에서 일일관법명상을 진행한다.(02)808-6582

수원불교청년회 새회장 신승우 씨

“장애의 몸이지만 전법에는 늘 앞장”

“내 인의 자성불을 깨우십시오. 부처님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지난해 말 수원불교청년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신승우(32·사진)씨는 불의 사고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지난 6년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신회장은 수불청의 대들보다. 오른쪽 두개골의 손상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시신경이 다쳐 거리감각조차 없지만, 가슴 가득한 불심으로 청년들을 이끄는 전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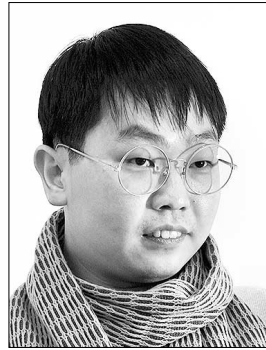
지체장애 2급 군대를 막 전역했을 무렵 그는 친구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2번의 큰 수술, 살아남 기망 없다는 의사의 진단.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회복 단계에 접어들자 그는 법우들의 도움을 받아 인근 사찰을 찾았다. 그리고 삼천배를 올렸다.

“법당을 빠져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수원 포교당 학생회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법회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의 생이 전법을 하고 자비행을 베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 믿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등분서주한다.

편치 않은 몸이지만, 열심히 생각이다. 지역통일사업과 민주화 운동 등 지역 일에 앞장서며 경기지부의 명실상부 최고의 청년단체였던 과거 수불청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 그제 자신이 되살아난 이유이며, 믿고 지지해주는 수불청 회원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한다.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대불련 첫 회장 강지혜 씨

“기대와 관심 큰 만큼 야무지게 보답할 터”

“네트워크 구축과 전국 대학 소속 지회의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2004 대불련,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제42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지혜 회장(성신여대·21·사진)은 이같이 포부를 밝히고, 현재 대불련에 가입돼 있는 176개 지회(각 대학 불교학생회)들의 현황조사와 재등록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상에 지원센터를 개설해 각 지회의 고민과 요구사항들을 직접 듣고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강 회장은 덧붙여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업은 대불련 활동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며 “특색 있는 지회활동을 장려하고 전법주공간을 정착시켜 봉족축제의 창립제 등의 행사를 대학 내 학우들과 부처님 법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불련 창립 42년 만에 선출된 첫 여성회장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남녀로 구별돼 집중 조정되거나 평가받고 싶지 않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회장으로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백분 활용하고 부족한 점들은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해 3000여 대불련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앓는 박수영 불자 어머니·여동생 모두 난치병



여동생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상황은 최악이다.

18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어렵게 수영, 수진 씨 남편을 키워온 어머니 최영희(45) 씨는 젊어서 앓은 폐결핵을 치료받지 못해 한쪽 폐가 굳어져 호흡곤란과 천식으로 일손을 놓은 상태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02)734-805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년 불자가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박수영(23·사진) 군은 현재 병원에 갇아야 할 치료비 3천여 만원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게다가 어머니와

천태종 칭찬 주인공 문동규 박사 4개월간 무료진료 183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 주인공이 되니 부끄럽습니다. 새해에는 불자들이 소원의 주체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서 주변의 이웃과 나라로 넓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윤덕이) 칭찬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선발하고 있는 두 번째 칭찬 주인공에 선정된 서울 현대병원 내과 전문의 문동규 박사(사진)의 소감이다.

문 박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한 생각만 돌이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동규 박사는 천태의료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03년 9월부터 종단 소속 사찰에서 무료로 183명을 진료해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호국 홍국사, 찬불가 경연 대회



육군 732부대 군법당 호국 홍국사(주지 영우)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찰 법당에서 찬불가 경연 대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주은식 여단장을 비롯한 군장병 불자 250여 명,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주지 법경) 신도 50여 명, 광동여고 불교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깨달음과 깨우침’ 다례법회



경기 양주시 대원정사(주지 해린)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50명과 함께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제로 다례법회를 봉행하고, 주지스님과 ‘사찰기분예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닐라 알라방 재활원 방문



경주 불국사 필리핀교원(주지 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 알라방 재활원을 위문방문,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방문은 주지 법관스님을 비롯해 교민 신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은평시니어복지포럼 창립대회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지난해 12월 2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은평시니어복지포럼’ 창립대회 및 ‘노인일자리 창출, 어르신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출범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Advertisement for the book '산사에서 바람과 나누는 조출한 대화' (A Conversation Shared with Wind in the Mountain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ell (jeogjuk) hanging from a wooden structure against a backdrop of misty mountains. The text is in large, bol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it says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When wind meets sound...). Contact information: 지현 스님 지음 / 240면 / 값 9,500원. TEL: (02)994-3947 FAX: (02)994-3948